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廢川敷地處理問題
地方民의利益을尊重하라

一

朝鮮內에는 各處에 河川敷地로 廢止된 土地가 만히잇다. 特히 最近 數年來로 河川整理事業의 進行을 따러서 이와가티 廢止된 河川의 敷地가 더욱 만허젓다. 只今 이 廢止된 河川敷地의 總面積에 關하야 統計的數字를 明示하기는 材料가 發表되지 아니한것이기 때문에 알수업는것이 遺憾이다. 그러나 咸南에 잇는 龍興江 城川江等을 爲始하야 洛東江 蟾津江 錦江 漢江 淸川江等 大江流域에는 이와가튼 廢河川敷地의 面積이 實로 彪大한바가잇고 또 그것의 大部分은 現在 地方住民들이 緣故關係와 및 其他 關係로 利用을 하고잇는것이다.

二

이廢河川의 敷地는 農耕에 適當한 肥沃한 土地가 만코 또 現在住民들이 農耕地로 利用하고 잇는것도 不少함으로 이것에 着目한 利權運動家가 簇動하야 一朝에 一攫千金의 致富를 하려고 東奔西走하면서 或은 權勢에 附하고 或은 資本家를 誘起하는等 各種運動이 內面에 猖獗히 되고잇는것이다. 最近消息을 들으면 咸南에잇는 城川江 汝消川 湖璉川等 三河川의 廢敷地를 가지고 獵權輩가 자못 猛烈한 運動을 하엿는데 지난 六日附로 總督府에 廢川敷地의 區域認定이되엿다 그 內容을 들으면 이廢敷地의 全面積은 一百七十萬三千三百餘坪으로 그中에 이미 畓이 된것이 一百三十七萬七千餘坪 田이된것이 四十四萬六千六百餘坪에 達하는 膨大한것이다. 그리고 이土地는 一日稅務監督局에서 調査하여가지고 咸南道로 讓渡되여서 處分하게되리라는것이다.

三

이處分問題에 關하야 一般의 注目을 잇그는것은 이것이 利權運動에 汲汲하는 그들에게로 가는것이냐 또는 地方農民으로 이廢止된 敷地를 耕作利用하는 所謂『冒耕民』에게로 가는것이냐하는 點이다. 이點에 關하야서는 이問題가 非但咸南의 이地域뿐이 아니요 實로 全朝鮮에 잇는 同種類의 土地處分問題이기 때문에 더욱 一般이 關心을 가지는바이다. 元來 地方農民이 이廢止된 河川敷地를 農耕地로 利用하는것은 一種의違法이다 그러나 耕作地가 不足하고 生活에 餘裕가 적은 地方農民으로서는 이土地의 耕作이 一種의 生命線을 維持하는 方法이 되는것이다. 그래서 違法인줄을 알면서 汗血을 흘리고 開墾耕作하야 膏沃한 田畓을 만드럿고 따러서 國家經濟로 본다면 비록 違法이라고할지라도 莫大한功績을 나타내인것이 事實이다.

四

그러타고하면 그土地와 何等의 關係도 업시 이것을 利權으로 獲得하려는 사람의게 比하야 實로 功績의 差異가 雲泥間인것은 두말할 必要가 업는바이다 그러므로 이廢敷地를 處分하는데에 잇서서는 冒耕者 或은 緣故者에게 處分하는것이 手續上 또는 代金收納上 多少의 複雜과 困難이 잇다고 할지라도 當然 그들에게 先取得權을 주어야만 될것이다 現下 自作農創定事業에 잇서서도 國庫에서 莫大한費用을 드리고 잇는터 이와가튼 河川敷地를 該當地方零細農民이오 耕作者인 그들에게 處分하는것이 一石二鳥다 이와가티 全朝鮮的으로 한다면 그効果는 多大할것이다

居住稅、料理稅等 新規增稅斷行키로
藏相、大藏省議서遂裁斷

(寫眞은 池田藏相)

【東京電話同盟】大藏省에서는 十二日午後藏相官邸에서 省議를열고 明年度臨時軍事費豫算의財源으로서의 新規增稅斷行可否에 關하야 協議한結果 如左한 理由에依하야 池田藏相도 이를 斷行하기로 裁斷을 내렷다 增稅額의 程度는 大體二億圓假量으로 보이는데 그內容은 臨時利得稅의 增徵及 物品稅의 擴大를 主로 한것이다

◆增稅理由
一、軍事產業其他時局에 依하야 所得이 臨時로 增加되고잇는 反面에잇서 經濟統制에 依한 轉業者失業者가 續出되고잇는 現狀에 鑑하야 그 負擔均衡을 꾀할 必要가 잇는것
一、消費節約貯蓄의 增加를 꾀하야 惡性인플레防止에 努力하기爲하야 增稅도 亦是有效한方法인것

◆實施對象
一、臨時利得稅增徵
一、物品稅의擴大
一、酒、砂糖、織物等消費稅의 增徵
一、遊興稅의國稅移管
一、新稅로서居住稅料理稅等

制度審議會 選擧制度部會經過

【東京電話同盟】議會制度審議會 選擧制度部會는 十二日午前十時부터 首相官邸에서 開會 水野總裁 小泉部長以下各委員 政府로부터 關係官이出席하야 選擧區、議員定數及選擧期間問題에 關하야 審議를行한바 먼저 齋藤隆夫委員으로부터 比例代表制에 關한 意見開陳이잇고 田澤義鋪委員으로부터 比例代表制에 關하야는 여러가지로 異論이잇스므로 이를 答申으로 採用치말고 다시愼重히 審議를거듭하기爲하야는 그 調査會를 設置하라는 提議를하야 各委員이 이에 贊成可決한다음 選擧區의 採決에 드러가서 定員을 五人乃至九人으로하야 大選擧區制를 小委員長 報告대로 可決하엿다 그리고 議員定數는 現在대로 하되 選擧法第十八條의 依한 選擧期間은 現在의 三十日을 四十日로할것을 可決하고 午正에 散會하엿다 이것으로 部會採決全部를 終了하엿스므로 來十九日 總會를開催하고 部會의決定事項을 審議키로되엿다

樺太選擧制施行 實現은至難

【東京電話同盟】十二日의 議會制度部會에서는 府에서 比例代表制問題에 關하야는 調査會를設置硏究키로되엿는데 希望條項으로서 樺太에選擧制施行件에 關하야 全會一致로 答申하엿는데 이에對하야 內務省側委員으로부터
一、樺太는拓務大臣 管轄下에잇는關係上 選擧長以下의 選擧關係職員에 內務省官吏가 就任할수업서 取締上支障이잇다
一、改正選擧區制에依하면 五名乃至九名을 一選擧區의定員으로 되엿는데 樺太는選擧者數가 僅少함으로 定員五名의 最少選擧區가 될수업다는 理由로 反對하고잇스므로 右希望條項實現도 至難할것으로보인다

小野寺長治郎氏 貴族院同和會에入會

【東京電話同盟】貴族院無所屬議員의 小野寺長治郎氏는 十二日 大島、江口兩氏紹介로 同和會에 入會하엿다 그리하야 同會는 會員이 三十名으로되엿다

興亞院開設 二十日前後에

【東京電話同盟】興亞院의 總務長官以下 各部長級人事는 十三日定例閣議에서 決定할豫定이엇든바 首相의 病으로 閣議를中止하게됨에 따라 十六日閣議에上程키로되엿스므로 興亞院開設은 豫定보다 느저 二十日前後로 될터이다

陸鷲英德空襲

【○○基地十二日發同盟】十二日午前我陸鷲의 精銳爆擊部隊는 密雲을무릅쓰고 粤漢線英德을 空襲하야 英德附近에잇는 敵倉庫軍事施設을 爆擊하고 敵陣地를 粉碎하엿다 同時에 宇佐爆擊部隊는 增城北方에 集結中의 敵大部隊에게 猛擊을加하야 大損害를주고 兩部隊모두 悠然히 歸還하엿다

米洲共同防衛案
베國代表、汎米會議에提出

【리마十一日發同盟】第八回汎米會議第三日인 十一日 베네주엘라代表는 米洲共同防衛에關한 重要提案을 提出한바 右는 루즈벨트大統領이 指導하는 米洲共同防衛案과 거의同一內容의것으로 外國으로부터의 侵略에對하야 米洲의 安全을 確保키爲하야 侵略者에對한 詳細한 定義를 함과同時에 侵略이 出現한 境遇에 米洲諸國이 即時對策을 共同協議하도록 規定하고 다시相互援助에關한 附屬協定까지도 包含하고잇다

메멜地方에 非常警戒令公布

【伯林十一日發同盟】코브노로부터의 報道에依하면 메-멜地方의 選擧에 關連하야 리투아니아 政府는 十一日午後 六個月間 非常警戒令을 施行할것을 公布하엿다 右에關하야 政府는 無責任分子의 策動에 鑑한것이라고 稱하고잇스나 其實은 今後益益 熾烈化할 메-멜地方獨逸의 併合要求運動에 備한것이라고보인다

海軍省豫算內示會

【東京電話同盟】海軍에서는 十二日午後六時부터 海軍出身貴衆兩院議員을 海相官邸에 招待하고 海軍側으로부터 米內海相、山本次官、各局長等이 出席하야

陸軍三長官主催 寺內大將歡迎晚餐會

【東京電話同盟】寺內大將歡迎의 陸軍三長官主催晚餐會는 十二日午後六時부터 陸相官邸에서 열리어서 閑院參謀總長宮殿下를 奉迎하고 板垣陸相、西尾敎育總監 中島參謀次長以下 各部局長等 三十數名出席 寺內大將을 中心으로 山岡、安藤、江橋、塚田四將軍을 交하야 먼저 板垣陸相으로부터 歡迎의 人事가잇슨다음 寺內大將의 答辭가잇슨뒤에 宴會에 드러가 各將星歡談을 거듭하고 同九時散會하엿는데 寺內大將은 宿舍偕行社에 入하엿다

人事·集會

◆柳興台氏 (本社記者) 李納淑孃과 十三日午後三時半 府內太平通府民館에서 結婚式擧行

蔣아·武將이거든 會戰、雌雄을決하라
蔣介石에보낸南支派遣軍挑戰狀

【廣東十二日發同盟】南支派遣軍報道部는 十二日午後四時發表 南支派遣軍最高指揮官은 蔣介石에 對하야 本十二日左記挑戰狀을 發하엿다

蔣介石에 與한다 早晩天下의 大勢는 大日輪과如히 風靡를 두려워할 배가아니다 蔣介石秘謀天下를 害하고 無辜의 民衆은 塗炭의 苦에陷케하는 南支派遣軍은 바이아스灣敵前上陸에잇서 世界의 列强을 壓倒하야 破竹의 勢로써 袖一觸、惠州 博羅 增城을 突破하고 數日이다못되여 大廣州를 攻略하고 다시 揚瀛의 陣을 東江南岸地에 進케하야 第百五十三師及第百五十一師의 敵數千을 殲滅하엿다 그戰鬪에잇서 廣東의 陷落에는 我軍은 겨우 一、二個大隊로써 當하엿을뿐으로 髀肉之嘆에 不堪하는바이다 이곳에모인 我軍精銳三十萬은 英氣에 넘처새로 銀翼을 날리려고한다 將軍이 萬一名將을 重히여기는 武將이라면 이미 百萬의 兵을거느리고 激擊하라 이기푸러진다 軍을 進케하여 颯爽한 바람을 모라 決戰하려한다 이어찌 武將의 本懷가아니고 무엇이라 長期抗戰이라하야 헛되이 등을 뵈이는것은 卑劣卑怯의 誹謗을 바들뿐이다 어느때 武將된面目을 保持할수잇스랴 빨리와서 會戰하야 雌雄을決하라 秋風落寞하야 將軍이 萬一 一敗塗地케되면 伏地하야 罪를 父祖의 靈에 謝함과同時에 天下萬人에 容恕를 바더 께뭇이 武人의面目으로 處決할지어다

南京陷落一周年
維新政府治下에復興機運膨湃

【南京十二日發同盟】芦溝橋事件에 端을發한 暴支膺懲의 聖戰에 敢然히 이러선 皇軍은 忽然히 北支에서 中支로 進攻하야 上海의 敵陣을 突破하고 杭州灣上陸部隊와 呼應하야 破竹之勢로써 西進또西進한 我中支派遣軍이 드디어 敵首都南京을 攻略 光化中山等南京城의 城門에 連다러 日章旗를 揭揚한지 이미 一年 世界史上에 永遠히 記念할 光輝잇는 그날은 드디어 도라와다 생각컨대 當時南京城을 目標로 進擊한 我中支派遣軍最高指揮官松井大將은 十二月九日에 南京防衛司令官唐生智에 對하야 投降勸告의 武士的措置에 나왓는데 敵은 條理를다한 我의勸告에도 何等反省의빛을 보이지안코 도리어 我에 挑戰하는 態度에 나왓으므로 十日午正을期하야 斷乎總攻擊을 始作하엿다 그러나 數千年의 歷史를 자랑하는 南京城은 三十餘키로의 城壁으로써 둘러싸고 그에다 近代的設備로써 防備되여잇섯슴으로 이 攻略에 向한 我軍은 말할수업는 苦戰을 避할수 업섯는데 十日午後五時 脇坂部隊는 光化門에 突入하고 中華、中山의 兩門도 繼續하야 我軍의손에 도라왓다 이리하야 十三日首都南京은 完全히 我軍의 占領하는바가 되엿슴으로 同午後十時 軍報道部로부터 皇軍의 南京城占領에 對하야 『江南의하늘이 晴明하고 日章旗夕陽에 비칠때 皇軍의 威容紫金山을 壓하엿다』라는 歷史的公表를 行하엿다 이것은 敵의 首都를 뭇찌른 皇軍의 威武를 描寫하야 남김이업는 名句로 一年前의 今日을 回想하야 感慨無量한 바가잇다

一年의 星霜을閱한 今日 此激戰跡을 차저 地下에 잠자는 忠勇義烈의 幾多의 將兵의 英靈을 弔하는者는 뒤를이어 끈칠줄을 모른다 崩落한 城壁과 벌집과가튼 無數의 彈痕 當時의 激戰의 뒤를 생각하게하고잇다 城壁을 둘러싼 溺水와 크리-크에는 或은실을 느리고잇는 太公望의 形姿가 보이는 平和로운 雰圍氣에 싸여잇는것이 今日의 南京城의 모습이다 南京도 한번皇軍의 支配下에 歸하자 治安維持會의 成立에뒤이어 維新政府의 誕生에依하야 雄壯한 復興의 巨步를 내어드디여 今年十月 維新政府가 上海로부터 南京에 移轉하야 本格的으로 執務를 開始한뒤로는 南京의 住民조차 놀랄만치 躍進的復興을 示하야 中支는勿論 全支에 號令할려는 氣勢조차 示하고잇다 그光輝잇는 記念日을 마지하야 南京에서는 官民協力하야 가장 意義잇는 그날을 보내려고 華麗한中에도 事變下에잇는것을 잇지안흔 實質的인 記念行事에 一年을 보낼것이다

新生支那首腦에 吳佩孚氏出馬?

當地에 達한 情報에依하면 新生支那政權首腦에 吳佩孚氏出現說을 報道가 자주傳하는데 吳氏는 出現할意思가 업다고 主張하고 同夫人은 最近占쟁이에게 무러던바 占쟁이는 『吳氏가 政界에나가면 꼬숙는다』고 豫言하엿다고 傳한다 그리고 一部에서는 吳氏는 新政府의機構가 一層明確히 된後에 나오는것이 조타는 생각을가지고잇다 그리하야 吳佩孚氏의 從者의말에依하면 同氏는 停戰勸告를하야 共產主義排擊의 重大聲明을할 決意라고 傳하는데 吳氏의 態度는 아직明確치아타 그러나 氏의身邊이 最近에 特히警戒가 嚴重히되여오는데 如何간 氏의動靜은 자못注目된다 (寫眞은 吳佩孚)

夕刊後市況 十二日

◆各地期米後止◆
大邱 群山 木浦 下關 名古 [illegible]

◆各地商品後引◆
福井人絹 橫濱生系 [illegible]

日蘇漁業交涉問題 暫定協定締結키로
河相外省情報部長經過發表

【東京電話同盟】日蘇漁業交涉은 東鄕大使와 리트비노프外務人民委員間에 三回에걸처 交涉한結果 從來의 協定調印에關하야는 蘇聯側은 遷延的政策을取하야 暫定協定期限滿了의 今十二月末日까지에는 諸般의 手續을 完了不可能한 狀態에빠젓스므로 外務當局에서는 同問題暫定協定을 締結키로 方針을 不得已 變更하게되엿스므로 十二日午後九時 外務當局은 情報部長談을 發表하엿다

▲河相情報部長 談
漁業條約 締結交涉은 過般來 東鄕大使와 리트비노프外務人民委員과의 間에 行해지고잇든바 리委員은 前月二十八日 日本側北鐵關係의 支拂義務를 履行하지안는限 長期의 新漁業條約締結交涉에 應키어렵다고 如左한 申請을하여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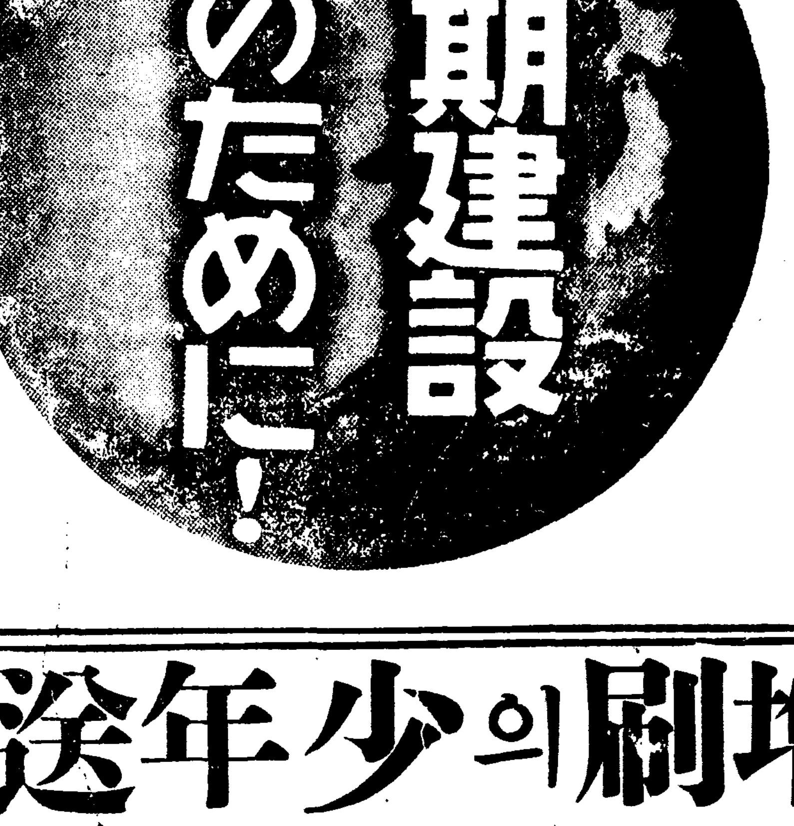
一、今年末까지에 右交涉이 成立할可望이업서 暫定協定을締結할境遇에 잇서서도 借區契約의 期限에 達치안흔 日本漁業者의 經營漁區는 그대로 貸付할것
二、競賣漁區는 一年間 延長하나 他漁區全部即廣田카라한協定에 依한 所謂安定漁區全部(我方漁區數中의 七十三퍼센트)及 其他期間滿了漁區는 이를 競賣할것
三、右安定漁區中大體四十以內의 漁區는 魚族保護 又는 軍略上考慮를 理由로하야 沿海、오호즈크、나가에우오、보리세레크各區에 亘하야 今後日本人의 經營에서 除外할것
四、그러데 新漁業條約을 締結함은 帝國政府가 只今까지再三聲明하와가티 포-츠마쓰 條約에 定해진 蘇聯側의 義務임에 不拘코 蘇聯側은 이問題와 全然關係가업는 北鐵支拂問題를 끄집어내옴으로 帝國政府는 十二月八日東鄕大使에 訓令을發하야 리委員에게對하야 北鐵代償金問題는 漁業問題와는 全然別個이나 日蘇間의 大局的見地에 鑑하야 昭和十一年日蘇間의 妥結로 決定한 所謂酒句、카즈로스키漁業協定案의 調印에 同意하면 我方에서도 好意的考慮를加할것을 言明하엿다 但右協定調印은 國內手續上 十二月十日以前에 이를行할必要가잇슴을 附言하엿다 이에對하야 리委員은 어데까지 自說을 固執하며 言을 左右로하야 讓步치안하엿다 이에다시 十一日 東鄕大使는 리委員과 會見하고 北鐵代償金問題에關하야 日本이好意的考慮를함에 잇서서는 所謂酒句카즈로스키案에依하야 承認된 日本側의 權利를 確認할 意向인가 又는이를制限縮少하려는 것인가아닌가에 關하야 蘇聯側의 意向을 質問한바 리委員은 蘇政府의 決定에는 何等變更이업다고 讓步치안코 또酒句카즈로스키案은 何等拘束力이 업다고하야 言明을 避하엿다 이리하야 蘇聯政府는 我方의 誠意잇는 要望을 無視하고 今年中에 新漁業協定成立을 不可能하게하엿스므로 東鄕大使는 新漁業條約締結에 關한交涉을 留保하고 于先明年度의 漁業을 可能케하기爲하야 今年內에 暫定締結의 必要를 力說하엿다 리委員은 이에同意하엿스므로 이에暫定締結交涉을하게되엿다 帝國政府의 보는바에 依하면 蘇聯側은 新漁業協定交涉繼續中의 措置로서
一、現行漁業條約及 附屬文書의 期限延長
二、一九三二年八月十三日 日蘇兩國間 締結에依한 安定漁區契約의 延長
三、繼諸工場特別契約의 延長
四、現行手를 豫算率維持等內容을가진 暫定締結을 할것으로 當面에 蘇聯側의 主張과가튼 我漁業權을 潰滅하려는 措置는 到底히 이를承認할수업는것이다

寺內大將等에 拜謁、御陪食吩咐

【東京電話同盟】天皇陛下께옵서는 北支의 山野에 三軍을 叱咤、赫赫한 皇軍의 威武를 中外에 빗나게한 前北支方面最高指揮官 伯爵寺內壽一大將에 對하사 十二日午前十一時半 拜謁을 吩咐하옵시고 軍狀을 聽取하옵신다음 北支第一線에 勇戰奮鬪하야 武勳을 樹立하고 同日歸還한 山岡重厚中將에게 拜謁을 吩咐하옵셧다 다시 內將軍은 飛松副官을 同伴 宮內省差遣의 自動車로 午正에는 兩將軍을 爲始、北支로부터 歸還한 東部防衛司令官 川岸文三郎中將、中支로부터 歸還한 牛島貞雄中將을 御陪食을 吩咐하옵시고 寺內大將에 對하여서는 御紋附銀花瓶一雙과 金一封 山岡中將에는 同一個와 金一封을 下賜하옵시고 그勞苦를 稿하옵시다음 一旦 入御하옵신 陛下께옵서는 午正에 豐明殿에 出御 閑院參謀總長宮殿下 御臨席 寺內 山岡兩將軍을 爲始 牛島 板垣陸相 西尾敎育總監 山脇次官等의 將星 松平宮相 百武侍從長 宇佐美武官長以下 側近者等을 召하옵시어 午餐의 御陪食을 吩咐하옵시고 그다음 千種間에서 茶菓를 下賜하옵시다 그리고 同日皇后陛下께옵서는 御兩將軍은 光榮에 感激하야 宮中을 退出하엿다

總動員法第十一條 朝鮮에도同樣施行乎
資本百萬圓以上 一割以上配當 會社約三十社

朝鮮에對한 總動員法第十一條에依한 配當制限의 勅令施行에 關하여서는 山地理財課長이 渡東 大野政務總監及 水田財務局長과 協議할것으로 보이는데 大藏省理財局原案에 依하면 配當制限은 百萬圓以上의、會社가 一割以上의 新規配當을 할境遇 이를許可制로 하기로되여잇는바 朝鮮의地位及 事業의性質에 依하야 다시 許可標準等에 特別한考慮를 拂하기로하면 右勅令이 朝鮮에對하야 一率로 施行될지라도 朝鮮의 產業擴充에 特別한支障이 업슬것이므로 勅令이 大藏省案대로 成立한다면 結局內地와 同一內容 그대로 施行되기로 決定되리라고 觀測된다 現在資本金二十萬圓以上의 會社로서 一割以上配當을 하고잇는것은 七十三에達하며 資本金百萬圓以上으로는 大體三十社假量인바 財務局에서는 各稅務署를通하야 詳細調査中이다



『一面戰爭 一面建設』
長期에亘한新東亞建設을爲하야、只今이야말로國民이 다함께生活을刷新하고、바야흐로貯蓄의增加에힘쓸때입니다
長期에亘한確實한 貯蓄의方法으로서、我社의有利親切한 保險을推奬하는바입니다

契約高 三十億餘萬圓
資產 五億四千餘萬圓
(昭和十三年十一月末)

그고確實한
日本生命
本店 大阪市東區今橋四丁目
京城支店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
(營業案內贈呈)

004248

增刷의 少年送年號今日絕版 新年特別號모레發賣
★朝鮮에단하나인少年課外讀本★누구나한번들면노치못하는雜誌★단十錢★註文은미리미리朝鮮日報社로

水道普及에癌!

給水條例의不備關係로 利權化한旣設給水管

新搬移徒者에게要求하는不當報酬의惡例

府當局、紛議調停策硏究中

수도는 도시생활자의 생명수(生命水)로서 그시설의정비강화는 보건위생상 비상시방위상으로 절대필요함에불구하고 경성부의수도는 현재급수인구 삼십오만명으로 그보급률은 전부민의 겨우 사할구분에 해당하는 빈약한상태이다 수도보급이 이와가티 지지부진하는 이유로는 현재경성부의수도 예산이일반회계에 예속되여 해마다 사십만원이상의이익을보면서도 일반회계재원에 편입시켜 잉여금(剩餘金)을 독자적입장에서 배수관(配水管)증설기타 보급시설에쓸수업는 사실과함께 수도법규가 불완전하기때문에 여러가지분쟁이속출하야 수도설치에 큰지장이 되여잇는 실정이 주요되는데 수도사업의건전한 발달을위하야 선진도시와가타 수도회계의 특별회계이관(移管)과 수도법(水道法)제정이 초미의 급무로서 각방면에서 요망되고잇다

분쟁이 제일만흔것은 종래는 수도와건물의 소유관계가 명확지못하야 수도잇는 집을삿음에불구하고 수도소유자의무리한요구 또는 악의로수도를쓸수업는점과 꼭하나는 다른사람이 기설한 급수관(給水管)에의하여 급수설비를 할경우에는 기설급수관 소유자로부터 수도분기사용승낙서(水道分岐使用承諾書)를 바더야되는데 이때에 기설자가 승낙하지안커나 또는 부당한보수를 요구하는일때문에 수도분쟁이 끈치지안는 형편이다 이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야 부당국에서는 작년봄부회에서 수도급수조례(水道給水條例)를 고처 제사조에 "급수용구는 그설치된건물 또는 토지의처분에따른다"는 단서(但書)를더하야 명백히하엿스나 호단의분쟁은 일향공단체의 조례를가지고 소유권을 제한할수업는따게로 아무런해결책이 업는실정에잇다 이와가튼분쟁은 급속히발전하는 신부역에서 장래는 더만히생겨 수도보급에 큰지장이 될것으로 우려되며 근본대책으로는 수도법(水道法)제정에잇스나 긴급대책으로 부당국에서는 도경찰부와 시내각서 기타관계자를 중심으로하는 상당히 유력한수도분의조정위원회(水道紛議調停委員會)를 설치하기로 지금조사연구중인데 그실현은 수도분쟁을 미연에방지하야 수도보급에 기여하는바 적지안흘것으로 기대된다

府內에散在한私道 今後로는積極取締

都市發展上、保安上支障이만흠에빗취어

昨日府廳에서關係官會議開催

지난일일부터 조선에도 도로령(道路令)이실시되여 경성부에서는 그규측에준거 한사도규측(私道規則)에의하야 부내에산재한사도에대하야 적극적취체를하야 계획적도시건설에매진하기로 되엿스나 부내에는 만흔집장사들이집을지을때 길을내지안코함부로 건축하야 도시발전상또는 보안상지장이만흔사실에 비추어 그악폐를철저히고치고저 십이일오후한시부터부청회의실에서사도규측실시에따른 협의회를 총독부토목과 판본사무관(坂本事務官) 동경도국주거기사(鳥居技師) 경기도에서관계관 부에서장향공영부장(長鄕工營部長) 이등토목과장(伊藤土木課長) 미산도시계획과장(梶山都計課長)이하관계자 이십여명이출석하야 규측에대한설명과 장래의추체방침을협의하엿다

京慶線의難工事 雉岳隧道完成

竹嶺도明春까지는貫通될豫定

조선철도에서는 기리로나 구조로나 처음으로보게될 명물인경경선(京慶線)죽령(竹嶺)과 치악(雉岳)의 두『턴넬』(隧道)은그동안 공사를 급히한결과 기리 삼키로륙백오십미돌되는 치악턴넬은 벌서 얼마전에 관통되엿스며 기리 사키로오백미돌의 죽령턴넬도 거의뚤려서 이제남은것은 겨우 칠백오십미돌뿐인데 이것도 명년이삼월까지는 전부통하게 될터이다

그리고이두『턴넬』아페는『루울』(지웅)식『턴넬』이각기 한개식 잇게되는데 이것은 전기두턴넬의 위치가노픈 관게로그 턴넬에 드러가기전에 먼저비빙돌려서 점점 노픈곳으로 올라서 드러가게되는것이다이런『턴넬』은 조선서는 처음으로 생기게되는것으로서 혜산선(惠山線)의 합수역(合水驛)과 남계역(南溪驛)사이에 노픈산우으로 통하고잇는『스위치빽』식 즉갈지자모양으로된 선로와 아울러조선철도선의 기이한 명물이될터이다 죽령턴넬아페 잇는『루울』식턴넬은 기리가이『키로』인데 현재 발굴가량은 뚤엇스며치악턴넬 아페잇는『루울』식턴넬은 기리 일키로칠십오미돌이나 되는것으로 이것은 벌서얼마전에 다뚤엇다 명년이월에 뚤으는 공사를완성하게될 죽령턴넬은 작년입월부터 현장에서 발전(發電)한동력을 리용하야 공사를 착수한것이므로 이년만에 사키로오백미돌되는 긴굴을 다뚤게되는세음이다

오는 소화십오년에경경선철도가 전부개통되는날에는 이기괴한굴로 통하야 내왕하는 만흔기차려객에게 이세상의 지옥(地獄)구경을 시키게될터이여서 미리부터 흥미끄으는 이야기거리로되여잇다

新春陣中에 慰問演藝團派遣

朝鮮軍援聯盟主催

지나사변으로 각지에 전전하야 두번째의 신춘을 전장에서 마지하는 황군、특히 조선관계의 제일선부대를 위문하고저 조선군사후원련맹에서는 대개다음과 가티 일정으로 오는 이십일일부터 약사십일간 예정으로、황군위문연예단을 파견하기로 되엿다 일행은 만재(漫才) 기술(奇術)무용、가요(歌謠)등의 명수 십이명인데 런맹의원이 인솔하여갈터이라고한다

嬰兒毒殺犯 懲役五年求刑

동서가 미워서 동서의 갓난애―에게 양재물을 먹여서 죽인세상에 드문독부 부내동숭정(東崇町)일백삼십번지 박옥숙(朴玉淑)(三二)에대한 공판은 십이일경성지방법원에서 부옥(釜屋)재판장주심으로 열렷는데 구구(久具)검사로부터 징역오년의구형이 잇섯다

驚馬가傷人

놀란말이 사람을 상케하엿다 ―십이일 오전열한시반 남대문파출소아페서는 이태원정(梨泰院町)사번지의 이호 마차부한진교(韓鎭敎)(三六)가 몰고오든말이 뛰자 고삐를노하버리어서말은 빈마차를끌고 다니나상웅진열관아페서 사판통(沙坂通)사십번지 김간란(金干蘭)와그도파의 딸 입분(立分)(四)을 중상시키고 다시 주소서명불명의 여한살된소년을 치여 인사불성의 중상을 내엿는데 급보를바든 본정서에서는 이견(一見)사법주임이하게원이 출동하야 겨우말을 붓들고중상자는모두세브란스병원에 입원시켯스나 생명이 위독하며전기마부는 경찰에검거되엿다

通信機關의擴充

時局關係로遲遲不進

체신국에서는 명년도 조선안의 우편소약오십개(금년도는오십팔개소)、시내전화가입자 약일천명을 증가하야 통신기관의확충을 하기로되엿스나 시내전화는 금년도증설에비하야 일약사분지일로 적어저 지금도 비싼 중요도시의 전화갑에 더욱박차를 가할것이염려된다

당초체신국에서는 대륙진출의 병참기지(兵站基地)로서 약진하고잇는 조선의 중추신경인 통신기관을 정비하고저 작년도부터 오개년계획으로 이천여만원의 경비를 던저 시내전화 가입자증가 전신급 시외전화 회선의 중요도와간통신속달케―블신설、통신의안전을 확보하며 방식변경(方式變更)에 의하야 통신능률을 올니는 외에 조선과 내지급 만주국간의 주요지에 전화연락을 도모하는등 획기적사업에 착수하엿스나 겨우일년을 경과한금년도부터는 사변관게로 계속사업으로할수가업게되여 해마다 신규사업(新規事業)으로 예산을 요구하기로되엿스나 명년도에는 신시설비로는 겨우총액삼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얏슬뿐으로 재난과예산난은 뒤떠러진 조선의 통신시설을 더욱지지부진하게하고 잇는현상이다

航空郵便四萬通

『스피―드』시대를 반영하야

關北僻地積雪二尺

酷寒！零下廿三度

大風雪로處處에交通杜絶

【咸南支社發】 지난一일부터 함남벽지에내린 눈은 희유의대설로 각지에서적설두자이상을 보엿다한다 그리고 이우에그날오후부터 맹렬히 엄습한 바람으로대풍설로되야 처처에교통두절의상태에빠저 주민들은 막심한불편을 보고잇스며 오지대교통만은 큰곤난을보이고잇다 풍산(豊山)군관내는 안수면 수상리(安水面水上里)로부터 신흥군계(新興郡界)에 이르는사이까지 약십리동안은 적설로 구일저녁때부터 인마의교통이 두절되얏고 삼수(三水)군에서도 영하이십삼도의 혹한에눈보라로파덕령(坡德嶺)까지 이르는사이 약십메돌은 길에눈이차여서 구일저녁때부터 차마의통행이 끈허저 목하부락민들동원시켜서 제설작업에 노력중이라고한다

아파―트專門의 少年窃盜團捕盡

십일일오후아홉시경 용산서원이 부내삼판통(三坂通)이백사십사번지 삼판아파―트압을 순행할지음 동아파―트 뒤문으로부터 거동이수상한 소년세명이나옴으로 붓들어서 본서로인치하야 취조한결과 이들은 주소부정한 한진형(韓振衡)(一八)김종관(金鍾觀)(一七)강원석(姜元錫)(一七)으로 지난 구월경부터 패를지어가지고 시내각아파―트를 전문으로 뒤저 구두、양복등을 훔처다는 팔엇든것만 오십여건에 수백원어치나 된다고한다

최근 한공우편은 대약진을보히고잇다 십일월중에 조선에발착한 우편물총수는 사만백사십사통으로 작년동기에 비교하면일약팔할이상의 격증이다

趙澤元舞踊會

各層의要望으로再登壇

今夜府民館서開催

일년동안이나 북란서에 체재하든 조선의무용을 세계에인식시키는동시에 새로운테―마와기양을 연구해가지고 도라온 조택원(趙澤元)씨의 무용회가 십삼일밤부터 부민관에서 열리기로되엿다 조씨가귀국한뒤동경에잇는 여류무용가 김민자(金敏子)양과함께 동경(東京)을위시하야관동(關東) 관서(關西)의 중요도시에서 귀국발표회를열어 절찬을밧고다시조선에 도라와서 지난번부민관에서 발표회를성대히 맛치엿스나 그때는 조씨가연구해가지고온 모든기량을유감업시 발휘하지못하얏스므로 다시무용계와문화층의요망에따라 금번새로히 열게된것이다 금번에는더 한층충실한 여유를가지고 여김민자양이상대역을맛터서 금년마즈막무용계를 꿋다웁게할것으로 기대와인기의 회오리바람을 이르키고잇다

빌려간畜牛를 팔어먹은惡漢

【金浦】 김포군대곶면상마리(大串面上馬里)김개손(金皆孫)이라는 그동리 한공하(韓公河)와공모한후 지난 삼일에 김포군검단면원당리(黔丹面元堂里)고금옥(高今玉)씨집에가서 시간짐을운반할것이잇다하고 동씨의 사유 소(牛)를 잠간빌려달라하기로 그주인은 평소에 지면이 잇는관게로 의심치안코 빌려주엇던바 그자는 그날로 인천방면으로 소를끌고가서 자기친구인 인천부도산정(仁川府桃山町)유석호(柳錫浩)씨의 소개를 어더가지고 대화정김창식(大和町金昌植)에게 구십팔원에 매각한후 유곽에서 하루밤을놀고 각기종적을 감추어버렷든바 지난팔일에 전기한(韓)이 자기집에도라와서 잠복한것이 경찰당국에 탐지되여 무난히 체포하야 방금 취조중이라하며 도주한김개손은 방금그소재를 엄탐중이라한다

人"情"의"急流"!

어제까지暴風속에허메든迷兒

오늘은貴公子로養父母의품안에

기보=기구한 운명의 기로에서 방황하는 집일흔 아히를둘러싸고 아릿다운 인정의 꼿치피여 무서웁도록 싸늘한규률의 세계경찰서의 오후를 가벼웁게 만드럿다는 이야기가 잇다 팔일밤한시 종로삼정목 파출소에 거리를 헤메고잇는 집일흔 아히가 발견되여 종로서에 보호당코잇던예의 평양의전 춘전(春田)박사의아들이라고 소동을 이르킨 아히는 십이일 삼년전에 일허버린 아들의 모습을 그리면서 차저오든전씨 부처가 자기아들이안이라는게판명되여 협살구즌 운명의 파도가 다시네살먹은어린몸을 휩쓸고 잇섯다 이것을본 동서 이정렬(李庭烈)순사는 아히를 자기아들처럼 각하고 목욕을 깻끗하게 시킨뒤 화신(和信)에서 양복을 사입펴가지고 이래기르고잇섯는데십이일오후에는 신문에서 이아히의 소문을듯고 아들로 어더길으겟다는 지원자가 나타낫다 하나는 시내계동정(桂洞町)모부호엿스며 또하나는 충북부모관리의 부부인데 청주하야 송강(松岡)서장을 차저와서 아히를달라고 애원하엿슴으로 서장도 전기이 경찰부와 상의한뒤충북부모관리에게 주기로 결정하엿다 새로이엇은 아들을 마지하랴고 새양복에 외투와 털목도리까지 사가지고 와서 그만은 순식간에 집일흔 아히는 귀공자가 되엿다 현관에 준비해두엇던 자동차가 옴지기자 이날까지기르든 이순사는 아름다운 아히의 전도를 축복하며 『아저씨』하고 엽흘때는 섭섭한마음에 눈물이 핑도랏다 아히를 데려간 사람은 결혼한지 십오년이 지나도 생산을 하지못하엿다는 부유한 관리이며 아히의 전정을위하야 일홈은 비밀에붓치기로하엿다

昇給昇格의朗報

鐵道局雇傭人一萬餘名에發令

철도국에서는 오는십오일쯤에 삼만이천수백명의전종업원에게일제히 연말상여를 주기로 되엿는데이보다압서서십이일에는우선 일급고원및용인(傭人)일만이천구백갈십구명에게 대하야 전부정기승급과승격을 시켯다 그래서 이날 철도본국을 비롯하야 전조선각정거장과 철도관게의각사무소에서는 명랑한 기분이 떠돌고잇서서 봄이닥처온듯하엿다 승급된 사람은 ▲용인일만이천이백이십명 ▲일급고원 삼백삼십구명이며 또 용인으로부터 고원으로승격된사람은 사백삼십이명이다 그리고 그승급총액은 일만몇천원이다 또 월급고원과 판임관이상에 대한승급은이달하순에발표하기로되엿다

神社參拜次

基督敎代表五氏內地向發

내선일체의 기빨아래 황국신민으로서 자각한 장로교파와감리교파의 대표자 양주삼(梁柱三)김종우(金鍾宇)이명직(李明稙)홍택기(洪澤基)김길창(金吉昌)등오씨는 십이일오후네시십오분경성역발열차로 이세신궁(伊勢神宮)을 비롯하야 내지각신사를 참배하려 열흘예정으로 길을떠낫다

朝鮮軍과對抗할 關東、關西의陣容

全日本選手等錚錚한名將網羅

熱戰이볼二地方蹴球

【大阪電話同盟】 전부터가는今年度蹴球界의 最後를 裝飾할 最大의 行事로서 注目의的이되여잇는 三地域對抗戰은 二十三日(朝鮮對關東)과 二十五日(朝鮮對關西)에 甲子園南運動場에서 擧行될터인데 이미朝鮮代表는發表하바 잇섯거니와 關東과關西의陣容은 다음과 가트며 各軍에는 伯林올림픽代表 또는今年度全日本代表의 多數가中心이되여各自特色잇는 實力을 보이고잇서 當日의熱戰을 벌서부터 期待케한다

◇關東軍▲監督 手島(東大OB) ▲GK 津田(慶應) 松丸(慶應OB) ▲FB 加藤(慶應) 中垣內(文理大) 吉田(早大) 菊地(東大) ▲HB 笠原(慶應) 石川(同) 高島(同) 大山(同) ▲FW 猪俣(慶應) 柴田(早大) 小畑(同) 二宮(同) 播磨(同) 阿部(東大) 加茂(早大) 渡邊(早大) 堀木(東大) 中島 (明大) 川本(早大OB)

◇關西軍▲監督 市橋(慶應OB) ▲GK 岡本(京大) 中村(關學) ▲FB 井上(京大OB) 岩田(關學) 笠井(同) ▲HB 右近(慶應OB) 木下(神戶商大) 三田(關學) 安居(京大) ▲FW 田中(關學) 田島(關學) 岡野(關學) 加茂(早大OB) 小野(京大) 室山(神戶高商) 大谷(神戶商大OB)

普專籠球不戰優勝

長期聯盟戰遂終幕

中央靑年會主催의 第十二回靑年籠球聯盟戰은 昨十二日午後七時에 普專對延專의決勝戰을 擧行할豫定이엇스나 延專이 遲刻하야 普專의不戰勝으로 되여 長期聯盟戰의 幕은 다첫엇다

昭和十三年度 朝鮮水上十傑

本社運動部編 ①

昭和十三年度의 朝鮮水上競技十傑表를 作成하면 다음과가거니와 全日本的水準으로보아 아직도 前途遼遠한感이 업지안흐나 이것을 昨年度朝鮮最高記錄에 比하면 一百米自由型과 四百米自由型、百、二百米平泳、二百米背泳等의 五種目에잇서서 記錄을 更新하야 水上朝鮮의 面目을 새롭게하고잇다 明年에는水上朝鮮의一層飛躍을바라마지안는다

▲百米自由型

1、金政主(徽文)一分○秒八
2、鄭安業(平壤)一分二秒二
3、洪福仁(培材)一分二秒二
4、姜齊勇(普成)一分四秒九
5、盧禎鎬(協實)一分二○秒
6、金冰振(東萊)一分二秒一
7、劉昌獸(養正)一分三秒六
8、湯貞鎬(協實)一分三秒一
9、金萬甲(徽文)一分四秒一
10、朴斗鎬(京農)一分四秒二
10、鄭瑞澤(徽文)一分四秒二
(昨年最高記錄一分六秒三)

▲二百米自由型

1、鄭安業(平壤)二分四秒八
2、洪福仁(培材)二分三二秒
3、金冰振(東萊)二分四秒二
4、劉昌獸(養正)二分○秒七
5、盧禎鎬(協實)二分一秒二
6、吳承澤(養正)二分一三秒八
7、鄭瑞澤(徽文)二分○秒四
8、李榮春(徽文)二分一六秒
8、梁復浚(景福)二分二六秒
10、金萬甲(徽文)二分二六秒五
(昨年最高記錄二分三四秒二)

▲四百米自由型

1、池光浩(普專)五分四六秒九
2、劉昌獸(養正)六分三秒六
3、金政主(徽文)六分一五秒五
4、馬仁鎬(徽文)六分二三秒一
5、金淳基(養正)六分二五秒五
6、金佐俊(養正)六分三一秒五
7、李鍾國(協實)七分二八秒七
8、李 芯(景福)七分二九秒二
9、韓基元(普成)七分三二秒
10、崔元衡(普成)七分四○秒一
(昨年最高記錄五分五○秒六)

甲子園送別拳鬪戰績

【代表軍】勝5…0【全關西】

【플라이級】 金仁泰(朝鮮) 判定 江木(關學)

【밴탐級】 金明錫(朝鮮) 判定 中里(關學)

【페더―級】 鄭福壽(朝鮮) 判定 栗(帝國拳)

【라이트級】 康仁鎬(立敎)KO 岡部(靑年會) ▼第一라운드一分二十秒

【웰터―級】 崔龍德(明大) 判定 上本(大日本)

총딱

◯ 시국에 특세한쇠부치 금조각삽아 씨우는 시대라…
◯ 절도라고 시대를 모를소냐그래서 『봉가살이』가횡행하거니와
◯ 그중에 거룩한 벳대기를두들기여 즐기는 고물상이잇는데
◯ 이번엔 전당포까지 한목끼여 아수『품아시 절도단』을 조직
◯ 그래서 이욕시생이 검은맘씨를 감옥에서 전당잡게되니타!
◯ 정원의 거의갑절이나 실코가 던빼쓰 전복 사상의참극을연출
◯ 규측을 범하는이도 밉거니와 정원초과해서 거절하면 야속해하는 심술도 청산합시다

曆

◆十二月十三日(火曜)陰十月二十二日 ◆辛卯 ◆日出午前七時三十九分 ◆日南中午後零時二十七分 ◆日入午後五時十六分 ◆晝間九時三十七分 ◆月出― ◆月入午前十一時五十二分 ◆滿潮(仁川)午前九時二十五分 午前九時五十分

今日天氣 雲後晴

廣告

肺病이낫는다

全快者가續出됩니다

肺結核으로熱이繼續되고、食慾이업고、咳嗽이더하면、咳와痰이나와서밤에잠을자지못하는분이며오래된重症이라도 … 東京市本鄕區森川町百十一 豊山院御藥所

只今이落葉期·그리고補陰補陽의節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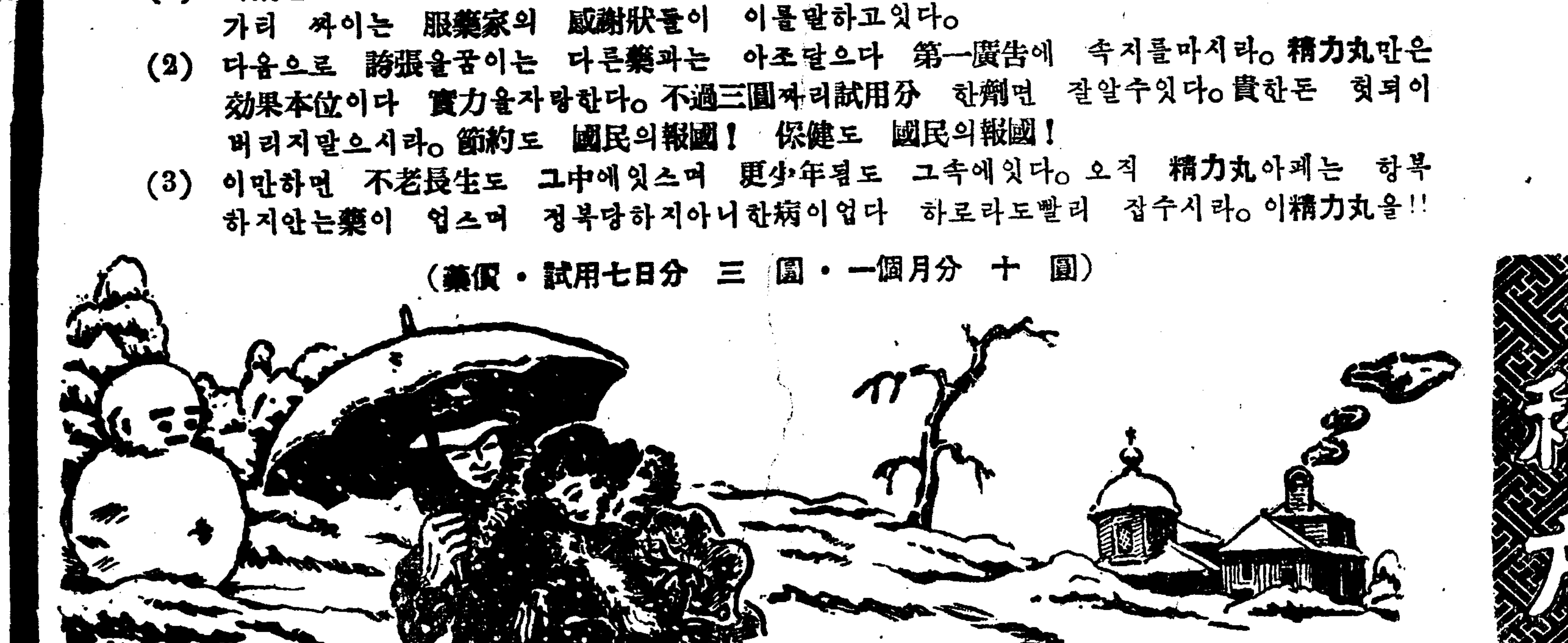
本劑가出現하면서萬病은終熄되엿다萬病의根源은元氣不足에잇다하로밧비元氣를補하시라!

(1) 이藥은 옛날부터 傳해오는 有名한 仙藥이다。먹으면 補陰補陽의 效果가뛰여난다。山가티 싸이는 服藥家의 感謝狀들이 이를말하고잇다。

(2) 다음으로 誇張을꿈이는 다른藥과는 아조달으다 第一廣告에 속지를마시라。精力丸만은 效果本位이다 實力을자랑한다。不過三圓짜리試用分 한劑면 잘알수잇다。貴한돈 헛되이 버리지말으시라。節約도 國民의報國! 保健도 國民의報國!

(3) 이만하면 不老長生도 그中에잇스며 更少年됨도 그속에잇다。오직 精力丸아페는 항복하지안는藥이 업스며 정복당하지아니한病이업다 하로라도빨리 잡수시라。이精力丸을!!

(藥價·試用七日分 三圓·一個月分 十圓)



이런분에게드립니다

1· 胃腸이 衰弱하야 무엇이나 먹는대로 消化가아니되는분
1· 元氣가 不足하야 陽氣가줄고 自然히 압이悲觀하시는분
1· 肺가 弱하야 가슴이 울렁거리고 밧튼기침생기는분
1· 하초가 冷하고 濕하야 언제나 뒤가목업고 아래배가압허서 애쓰시는분
1· 밤에 단잠을 못자고 꿈으로 날을새우는분
1· 神經이 날카로와 대소롭지 아니한말에 노해지고 웃지아니할말에 우서지는분

京城西大門町一丁目
精力丸本舖 合資會社 圓岩藥品部
電光一二三九番 振替京城一八六九七番

補腎·補陽·補陰·消化

秘方 精力丸 仙藥

首都京城의大羞恥
依然傳染病의都市
여름에는赤痢·겨울에는지푸테리아가猖獗
比昨年約二割四分增

경기도위생과의 집계에의하면 금년일월부터 십일월말까지에 경성내에서 발생한 전염병환자는 이천일백구명으로 작년의일천일백구십삼명과 비교하야 이할사분이라는 놀라운 증가률을 보여주고잇서 듯는사람으로하여금 새삼스럽게 놀라게하고잇다

가장만히 불은것은 역시 지난여름의 적리에서 작년의 오백구십삼명에대하야 금년은 팔백오십삼명 즉 사할사분의 격증이지만 남세가주의할것은 때로 새로히 특히 어린이들의생명을 노리기가 일수인무서운 디푸테리아의창궐을 이즐수가업다 벌써시월 십일월 두달동안만도 작년에 비해서 이할일분의 증가률을보여주고잇다는데 아모로 이병의 본격적인 활동기에 드러간다면 이제 얼마나더늘어갈지 예측키 어려워 금년겨울은 어린이를둔 각가정에서는 특별한 주의가필요하리라고한다

이병은 주로칠세미만 특히미취학아동이 만히걸리게되여 사망률은세사람에 한사람꼴로되는 넘히된다는데 금년겨울은 이병이 의외에도 만히생겨 도위생과에서는 도내각소학교에 명하여어린이들에게 일제히 예방주사를 주도록 엄명하는한편 각경찰서를 동원하야 어린이의 예방주사를 철저히 독려키로 되엿다는데 주사는 도청위생과와 부청에서는물론 부민병원 순화원 동서 두곳 인보관(隣保館)에 의뢰하야 무료로 해주기로 하엿스니 빠지지 말고마저되 하면 또 극장 백화점과 가튼 사람이 만히 몰리는 장소는 전염의 기회가 만흠으로 어린이를 될수록 데리고가지말도록 주의할필요가잇다

을 마지안는다고한다

煙草小賣人座談會

【長湍】장단연초판매소에서는 일전하전시체제하에재한 일반연초소매인에게 시국인식을 강화하고저 지난십일오후여시경에 장단면사무장에서 관내각처연초소매인의 참집을구하야 장기전에대한 견인지구와소매인으로서 비상시국의본분을다하야 일의전매보국에 매진하자는 취지하에 좌담회를 성대하게개최하얏다

森本勇士歸還

【烏山】지나사변이래 일년반이나 제일선에서 전전 활약하야 만흔전과를어던 개선용사 오장 삼본인진(森本寅人)씨는 지난십일일오후두시차로 수선면민 각단체학생의 정연한환영리에 무사히도라왓다

經濟警察座談會

【江華】강화경찰서에서도전하시국의적절저의경제계획의주지철저하기위하야 오는 십사일정오부터 동오후네시까지 「경제경찰좌담회」를 개최키로되여 신문기자단을 필두로 군계원과 각면당업자 일반업자등 이백여명을 초치하엿는바 당일의순서는 다음과가티 진행한다고한다

自零時 至三十分 高城署長訓示

自零時三十分 至一時三十分 統制法令指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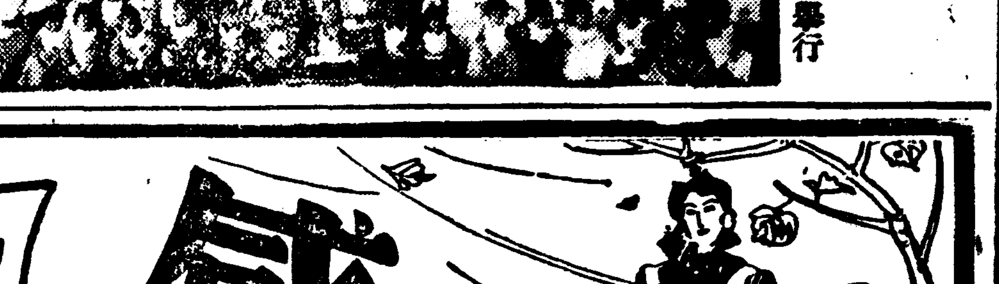
自一時三十分 至四時 質疑應答

仁川에支那人 百六十名入港

【仁川】지나인의 재입선의허가가된이래 락토조선을 동경한지나인이 속속재입선을 한다함은 기보한바와가거니와 또지난십이일에는 인천항에입항한 조선우선회사의 소속선 청진환(淸津丸)이 청도(靑島)기항중에 일백육십명의 지나인이 인천에상륙하엿는데 이사람들은 전부가산동(山東)사람들이라한다

江華幼稚園慶事
新築中의園舍도落成
新設立者推戴式도擧行

【江華】강화유치원은 대정십이년에 군내에여자청년회가 주동이되여가지고 성공회(聖公會)의 원조로 설립되여 이래십수년간 울파란중첩한가운데 내려오던바 현원장인 김근호(金根鎬)씨가인수한이래로 내용충실과 아울러 만흔노력을 아끼지안허오던바 금반 삼천여원의다액이나 드려서 원사를 개축하고 일반운동기구를 완비하야 지난 초가을을 기하야 원사도낙성이되엿고 또한 성공회에 종전보조도 끈케되므로 지난 유일을 기하야 원사낙성식과 아울러 현원장 김근호씨를 신설립자로 추대키로되여 그식을 성대히 거행하얏던바 당일에는 경성으로부터도 내빈이잇서 좀처럼 볼수업는 성황을 일우엇스며 명춘에는 가사실까지 건설하리라 하야 일반의 기대가 크다고한다 (寫眞 當日記念撮影)



水仁線改善要望
京東鐵道當局에交涉
仁川府勢振興會에서蹶起

【仁川】기보=인천부세진흥회에서 수자연구로의중에잇던 수인선(水仁線)의 개선문제에 대하야 현의한결과 개선요망서를 경동철도당국에 제출하기로 되엿다는바 개선요망의 중요한것은 운전속력의 '불합리'과 발착시간의부적합 운전회수가 적은것등으로서 동선리용자의기대에 만족지못하엿더니 인천항선거와경인선과의 운전런락 편의를 보여줄것과 동선을 세판구내까지 연장하도록 긴요한조건으로서그실현을 요망하기로 되엿는데경동철도회사의 자체로서 어떠케 진행시킬지 일반의주목을 이끄는바이라한다

勤勞報國團總出動

【廣州】작오일 광주군언주면지원합 주재소 학교직원을비롯하야 면내유지와 근로보국단원구백구십명이 총출동하야 등외도로에 사리부설과 언주소학교 증축부지지균공사에 근로봉사를하얏는데 특히중인에게 근로의감격을준 죽본(竹本)부장은 손에망이를잡고 솔선봉사함에는 전출동원과 종행하던인사도 감격함을 마지아니하얏다

水原城湖面事務所 新築落成式盛大
總工費一萬四千餘圓

【烏山】수원군성호면사무소는총공비 일만사천사백구십사원의거액으로 지난구월상구일준공되여 파반전부이전을마치고 지난 십일일오전십일시를기하야 인근지방관민다수열석리에 성대한 낙성식이 거행되엿다 먼저신축나선제례가잇슨후 계속하야강(康)성호면장의식사와 허(許)수원군수의고사 일반내빈제씨의 축사등이잇슨후 성대한축하연으로 식을마치엿다

京南鐵道營業課長 小川直吉氏가就任

【保寧】경남철도(京南鐵道)주식회사 영업과장 강본립사(岡本立巳)씨가 용퇴한후 후임으로지난일부로 전대전역장이엇든 소천직길(小川直吉)씨가 임명되얏는데 지난십일에 경남연선을순찰하고 당일귀사하엿다한다

木浦行列車에轢死

【長城】호남선장성역에서 지난팔일오후오시오분발 제오백칠호 열차가 장성역에서 약일백이십메돌되는지점에서 주소부정의삼십가량되는 방랑어리가 큰살되엿다는데 그는남의집으로다니면서 고용한는여자라고한다

南原서時局講演

【南原】국민정신총동원연맹 강연회에서는 도연맹으로부터상리리사문원태(文泉泰)씨를 파견하야 강연회를 오후여덟시 용성소학교대강당에서 개최하엿다

正租共販不振으로 五個場所는休場
江華郡共販界에異狀

【江華】강화군내의 정조공동판매는 예상이상의 부진으로 그성적이 작년에 비할바 못됨은 무론이어니와 금년도 공판에잇서서는 부담이 과중한것이 만흔중 작년에 보지못하던 수검대리비(受檢代理費)라던가 또는 협회비(協會費)라던가 운반비(運搬費)등이 생산자들에게 근고통을주며 또한편으로는 "삭대벼"(見刈籾)까지 무리착취하는반면일부 중간상인보다도가격이 싸다하며 수고는 더해야되는고로 일반의 공판출회는 대부진을 보이고잇서 당국자를 간에도 만흔 고통을 자아내고잇던 나머지할수 업시 강화군농회에서는 하점면망월리(河岾面望月里)양산면철산리(兩山面鐵山里)송해면숭뢰리(松海面崇雷里)강화면월곶리(江華郡月串里)화도면사기리(華道面沙器里)등 다섯곳에공동판매소는 휴장키로 비장한 결의가되여잇는바 전기오개소의잇서서는 당면이 조사를하야 최소한도 삼백가마니이상의 출회가잇다는 조사보고를 밧고야 임시입시하야 개장키로 되엿다는바 파연"공판에 이상이잇다"하야 아프로의 추이가 주목된다고한다

六千餘圓을積立 學年延長을陳情
廣州彦州公普校에서

【廣州】광주군 언주면(廣州郡彦州面)은 경성과 인접한곳으로인구와 호수가날로 증가하야 우리광주에서는 유일한발전의 가능성이 풍부하며 주민들도 지방개발에는 충심으로 봉공하는 현상인데 교육기관은 사년제심상소학교한곳으로는 현세에 적유한초등교육이나마 자제에게식히지못함을 늣겨오던 나마지에 학년연장급학급증설기성회(學年延長及學級增設期成會)를 조직하야 수년간 축적한면민의 적성인결정금 육천원을 세워노코 당국의적절한시설이 잇기만고대하얏스나 하등의시설과 조처가업스므로 지난십월십팔일 제일차 진정을도청에하얏스나 아모통지가업스므로 동기성회에서는 아래와가치 진정위원을 선정한후 지난오일에 경기도청에 파견하야 진정케하얏다는데 당국의조처여하를 주목중이라한다

上道陳情委員 森下正重 黃始浩 白贊基 朴泰燮

金月龍氏의特志

【蘇萊】의지가지업는 고아를양육하야 출가까지 시켜주고 살림을 보아주는 아름다운일이소래방산리에잇다 그내용을 조사한바에의하면 부천군소래면방산리(芳山里)에 거주하는 김복남(金福男)은 일죽이 사랑하는부모를일코 의지할곳이 업섯다한다 자기친족되는 김월룡(金月龍)씨가 가련히 생각하고 거두어 우금십여년을 동거하며 제반살림을 시키는동시 출가까지 시켜주기로되여 일간 결혼식을 거행한다는데 일반은 그김씨의 아름다운 모범적행사에 칭하함을 마지안는다하며 신랑신부의 압날을 위하야 축복합

郡部民은完納 府內만滯納
仁川納稅成績의奇現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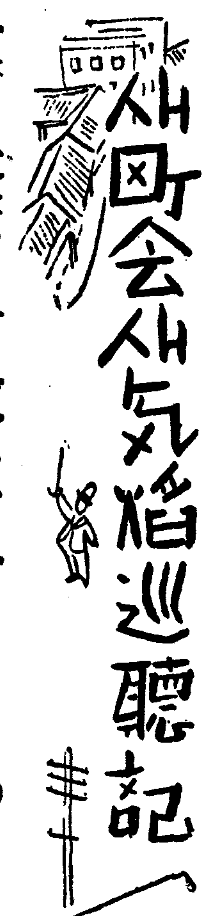
【仁川】인천세무서관내의 제삼종소득세와 영업세 제이기분의 징수성적은 기보한바와가티 관내의 군부에는 완납의호성적을 일우엇스나 부내는 제삼종소득세 일천삼백여원 영업세육백여원의 체납을보이엿는데 이징수의항목은 제삼종소득세구할팔분일리로서 전기의 증세할당제삼종소득세 구할사분삼리에 영업세 구할이분삼리를 비교하면 제삼종소득세 사분이리와 영업세육분팔리가 호성적이나 부내만이체납자가만흐며 그중에도 상당히 큰 체납자가 잇다한다

窃盜出現頻繁

【南平】전남나주지방에는 절도의출몰이빈번하야 인심이자못 불안중에잇는바 또다시 지난유일 밤 산포면더려리한모(韓某)의집

浮浪少年의安息處 仁川更生館活動
成績보아就職도斡旋

【仁川】인천부내에 집도업고부의무탁한 부랑소년을 갱생의길로인도하야 한사회의인간을 만들려고 인천부에서는 지난칠월에 갱생관(更生館)을 개관하고 인천서의 협력을 어더 부내를 횡령하는 악소년을 수용하야의복까지 급여하야서 조흔길로인도하고잇는데 최근에 약삼십명이수용되고잇는것이 규측적생활에 권태를 늣긴 소년들이 도주를하야 지난구일 현재로 이십사명이 수용되고잇는데 이소년들의 일은련탄(煉炭)제조와 배급을 하고잇다 이중에도 파거생활을 일죽하고 규측적생활에 전환한 소년들은 인천부청에서 취직을알선하야 주기로되엿슴으로 수일내로 이삼명 부내모상점에 알선하야 성적을 보리라한다



惠化·明倫町會
長安에有數한富村
今後施設을期待
經學院과城大는이町의名譽 (52)

오늘은 혜화정(惠化町)과 명륜정(明倫町) 정회의 기염을 들어보기로하자 말(馬)은 나커던 제주(濟州)로보내고 사람은나커던서울로보내라는 옛말과가티 서울은조흔곳 살기조흔곳이다 돈잇는사람도 살기조코 돈업는사람도살기조흔 서울이라고 요즈막시골사람들이 서울로서울로 몰려들고 잇는데 이가티조흔 서울가운데서도 제일살기조흔곳이 혜화정 명륜정이라고한다 이것은 비단이정회사람이정내에사는사람들만이 자랑하는것이 아니라사실상최근장안에 주택지를찻는사람이라면 동내가새집들로 깨끗하고공기조흔이곳을 첫손꼽기에 모두들 서슴지 안흐리라 이정회의 자랑꺼리로는 이뿐만아니라 예날 성현을 모서잇는 경학원(經學院)이 명륜정한복판에잇스니 일반정내의 문교상에두말할것업고 또 그부근에 고송(古松)이 정립하여잇스니 총독부조차조하서 이동내의 공원인양하야 정내에서는 장래이곳에공원이 설치되기를 기대리고잇다

서쪽으로는 장안인사의 생활에 시달린 초조한녀슬 위로하여주는 동물식물원이잇고 봄날의한창핀 벗꼿으로서유명한 창경원(昌慶苑)이잇는가하면 동남으로는 조선의 최고학부인 경성제국대학이 웅자를자랑하고잇다 지난봄부터 창경원에서 동소문까지의 넓은간선도로가 착공되여 이제거진 준공에가까워잇는데 이덕분에 혜화정입구에는 「로ー타ー리」(旋廻式)광장이 나타나고 명년봄까지에는 창경원서 동소문까지 전차가 개통되여 금상첨화로 이동내가 더조하질것이다 명륜정을 기피 차자들면 사범정약수터가잇스니 이것이 또한 장안에서도 몃째가지안는 유명한 약수로서 또한 이동내의 자랑꺼리가 아닐수업다 정내의 경제력을 따저 보드래도 혜화정은 장안에서도 유수한 부촌동내로서 이또한 이곳성리를위하야 든든한일이다 이러듯조흔 동내의 새정회를마튼 새총대가 누구인가 일찍기 충청남도의실업계와 지방행정방면에서 명망이놉든 성원경(成元慶)씨이다 이분을정총대로 마지한 이정회의전도야말로 탄탄대로의 느낌이업지안타 장차 이정회에서 해나갈일이 하나둘이 아니로서 우선신개주택지이니만치 수도가 미비한 곳도 적지안허 이것을 속설할것은 물론이고 큰 골목에 외등들을 증설할것과 명륜정 「뻐스」정류장으로 흘러내리는 개천의 암거(暗渠)문제등을 들수잇서 정민들의 새정회새총대에대한 기대는자못크다

(사진은총대성원경씨)

開城堂橋市場火災
果物商二軒全燒
空家에서發火·原因失火

【開城】지난십일새벽 오전네시경 개성부내 당교시장(堂橋市場)앞구호 이실호 조기환(曹基煥)의 과물상에서는 돌연큰불이 이러낫는데 주인이 자지안는 비인상점이라 이천오백원에 상당한 각종상품을 전부 불구덩이속에 태워버렷스며 동가에 동도 전소되고 말엇다는데 발화원인은 상점회로에 숫불을 간수하지안흔때문에 이러난 실화라고한다

景品附賣出廢止

【寶城】전남보성일반상가에서는 예년에 실시하든 연말경품부대매출을 금년만은 비상시전시체제하에 대중의기심과 소비욕을 조정하기위하야 일체 폐지하기로 되여 일반상가는 매우 재삼스러히 세말연시의 전시상을 맛보게되엿다하는데 예년과 갓지는못하나 그대신 소규모로 각상점에서는몃몃권을발행하야 일반고객에 만분지일이라도 성의를 표시하기로 되엿다한다

胃腸障害其他副作用絶無

安全하고効力잇는!

刺戟이强한科學藥은……體質에맛지안코면甚한中毒副作用을이르키면지胃腸을害하야、意外의失敗를招來하는일이往往잇슴니다。感氣藥은무엇보다도撰擇이肝要합니다。

實効散은絶對中毒과副作用의念慮가업고그리고感氣熱에는大端히効能이잇스므로至今이나예이나第一賞用되고잇슴니다

(定價) 貳拾錢 參拾錢 五拾錢 壹圓 三圓 五圓

全國藥店에有함

感冒解熱特効藥

實効散 (길 호 산)

一二三 實効散 本舖 東京神田明神下 師岡天然堂 振替東京一三七二番

皮膚病に

一二三 外用常備藥

實効第一

四季를通하며皮膚病에는一二三이第一입니다 効力이速하고나은痕跡이깨끗합니다。

二拾錢 三拾錢 五拾錢 壹圓 —藥店에有함—

NO…20

頭痛이잘낫는名藥

有名한醫學博士 森田資孝先生御推奬

ノーシン 노ー신

●머리가갈러지는것가티몹시아플때!!

●바늘로쑤시는것가티골치가아플때!!

그리고 머리가아프지안드래도過度한讀書로睡眠이不足하거나 머리가무겁고 흐릿하여질때

나술을過飮하고餘毒으로氣分이조치못할때나 언제든지 잘낫는名藥입니다 만

일頭痛으로 괴로운때가계시거든 이노ー신을 꼭 한봉만잡수어보십시오 언제ー머리를아펏드냐? 하는것갓흘

가삼뿐아니라 아조 머리가 明快해어더케 기묘하게 잘낫는것이 노ー신의 가장 자랑할만한 特徵입니다 平時에 服用하신대도 決코害지는 안사오니 安心하옵시고 잡수십시요. 더욱 家庭常備藥으로 언제나 우리同胞에게 만히愛用하야서 頭痛으로 고생하는분이 게시거든 꼭 이노ー신을 服用하도록 가르처줍시다. 노ー신은 어느곳에서나 各藥店에잇습니다 요사이 노ー신과 비슷한 藥品이만히나왓사오나 잘못하면속기가쉽습니다 사실네 帽子印잇는ノーシン 예잘注意하십시오

藥價 四包入 二十錢 七包入 三十錢 十二包入 五十錢 廿八包入 一圓

發賣元 名古屋市東區東新町二丁目 荒川長太郞合名會社 振替名古屋七五三番

武田發賣品

가슴쓰림 胃痛의 最新治療藥

ノルモザン錠 (노루모잔)

胃酸過多症이란

食後 胃部에膨滿感이잇고 시다신胃液이올라오는 생목、트림、가슴쓰림은一二三時間後에 胃가아푸고如斯한 症狀은 胃酸過多症狀이라고하는것입니다 이治療를게을리하면 生命에關係되는 胃潰瘍이되는일이잇습니다

加療 法으로서는 ノルモザン錠의 服用이最適합니다 ノルモザン錠은 服用後胃中에서 엷은膜이되야 胃壁을덥고 患部에미치는胃酸의 刺戟을막고다시에 過剩胃酸을 吸收하야、胃酸의 分泌를制限하는故로胃部、胃痛의 不快를업새서 治癒케하는 胃酸過多、胃潰瘍의 優秀한 特効藥입니다

〔効能〕胃酸過多症、가슴쓰림、트림、생목、胃가다루는 胃潰瘍、便秘、惡酔、船車暈等

〔定價〕六錠入(二〇錢)三日分(五〇錢)一週間分(一圓) 十六日分(二圓)一個月分(三圓五〇)二個月分(五圓)

製造發賣元 株式會社 武田長兵衛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本社直通 廣告部 電本四〇三〇番 販賣部 電本六三八一番

火野葦平著

土と兵隊

現地寫眞廿數葉入 定價六十錢 送料六錢

數十萬部の準備を以て火蓋を切つた本書配給陣發賣即日にして脆くも潰滅!!全國書店よりの追加註文連日殺到!!晝夜强行軍の增刷中!!

文武兼備の魂の輝き 水原秋櫻子

「麥と兵隊」に劣らぬ感銘を受けた。この二作のいづれが特に傑れてゐるかといふ批判はとても出來ない。さういふ批判を絶えた大きな力をこの文章から感ずるためである。あの激戰の間に、疲れきつた手からよくこれだけの立派な文章が綴り出されたものと、私はつくづく感嘆する。死生の境において、武人としての魂が輝くと共に、文人としての魂も輝いたのである。(昭和十三年十一月廿日早稻田大學新聞所載)

全人類の寶 板垣直子

「土と兵隊」は前作の「麥と兵隊」と同等或ひは、それ以上の傑作である。實にしーんとした嚴肅な氣を持つてゐる。それを讀んでゐる間、我我は、全人類の寶ともいふべき歐洲大戰を描いた一流文學の持つてゐる嚴肅な氣韻を側々と感じた。今度の事變において、兵隊はいかに戰ひ苦勞してゐるかを、最もよく傳へてくれたのは火野氏の二つの作品である。その他の有閑的な無數の戰爭ものはすべて消滅しても差支ない。(昭和十三年十月廿六日東京朝日新聞所載)

滿點の頭腦 室生犀星

「土と兵隊」のたどたどしい未熟な處女作くさい美しさは、何よりもこの人の頭が、職業文士の荒れた頭とちがつてゐる點にあるのだ。平常、原稿で荒された頭では、戰場に行つても疲れるばかりで頭の硬化作用が一層ひどくなるばかりなのだ。火野葦平はその點では滿點なのである。(昭和十三年十一月廿五日讀賣新聞所載)

東京市芝區新橋七丁目十二 改造社 振替東京八四〇二

長篇小說

薄命 (164)

韓龍雲 作 鄭玄雄 畵

이혼 (九)

순영이는 그편지를 부친뒤에 반드시 위로하는 답장이 잇스리라고 기다렷다 물론 대철이 편지는 마음이 상하는중에 화가나서 한것이라고 생각하얏거니와 가령대철이가 자기를버릴 생각이잇서서 그랫다하더라도 그편지를 보고서는 반드시 회심하리라고 생각하엿다 대철이가 자기에게 대하야는 미흡한 점이 잇다할지라도 사랑하는 수복이로 보아서도 그러하리라고 하얏다 그러나 여러날이 지나도 답장은 업섯다 설사 위로하는 편지까지는 못하더라도 돈을바더다는 통지라도 잇서야 할터인데 아무런 소식이 업섯다 그러자 섣날이 가까워젓다 순영이는 대철이가 세때에 오량으로 그사이에 편지니 무엇이니 할것이 업서서 안는것이라고 생각하얏다

『엄마 그게 누구 때매야?』

수복이는 옷을 다려서 상자에 너코잇는 순영이게 뭇는다

『이것은 아버지 때때다』

『이것은?』

『이것은 네 때때구』

『엄마 몃밤자면 설이유?』

『인제 세밤만 자면 설날이지 하나 둘 셋』

하고 손구락을 꼬바 뵈인다

『하나 둘 셋』

수복이는 하나 둘은 손가락을 올케 꼽고 『셋』할때에는 다섯 손가락을 다꼽는다

『아니야 그러케 꼽는것이 아니야 자 이거봐요 하나 둘 셋 이러케 하는거야』

순영이는 수복이 손구락을 꼽아준다

『나는 그러케하기 시려』

수복이는 고개를 외여튼다

『옹 그럼 고만두어 네마음대로해』

순영이는 수복이를 달래면서 옷을 개어넛는다

『엄마 설때 아버지 와?』

『암 오시겟지』

『내 때때하구 과자하구 가지구 와?』

『그러치 오시면 네 때때하구 과자하구 사가시고 오시겟지』

『아마 바쁘니까 그런게지 오늘은 저물게라도 드러오겟지』

말은 아니하고 생각으로 이러케하는 순영이는 어느때옷지 모르는 대철이가 드러오기면 때무든 옷을 뵈는대로 입힌 수복이를 그대로 뵈이기가 실코 도 자기도 구주주한 그모양을 그대로 뵈이기가 시려서 일직암치 수복이를 낫씨켜서 때때옷을입히고 자기도 소세를하고 뻔뻣이나마 깨끗한것을 가라입엇다 그러나 대철이는 고사하고 누구하나 드려다보는 사람도 업섯다

밤이되매 순영이는 명불(命燈)을 켜노앗다 새종재기에다 참기름을 가득히 부어서 세밥심지에다 불을 부처서 세울나란히노앗다

『엄마 그게 뭐야?』

『이게 명불이다 명 길라구 명불 켜는거야 이것은 아버지 불이구 이것은 네불이구 이것은 엄마 불이구그러타』

순영이는 불을 차례로 가리치며 말하더니

『우리 수복이 불이 제일 밝은데 불똥두 잘 안꾸 그러치』

하고 수복이 볼에다 입을마추다

『수복이 심지가 조금 비뚜러젓네 정직한 사람의 심지가 비뚜러저서 쓰나 바루 세워야지』

순영이는 섣달가바로 심지를 바루잡다가 심지가 너머저서 불이 꺼저젓다

불켜는것을 보고서 웃고 뛰놀던 수복이는 제불이 꺼저진고 동구러가며 울고 때를쓴다

순영이는 수복이게 불길한 증조라고 생각하야서 가슴이 아프도록 후회하엿다 순영이는 다시 불을켜서 자기의등잔과 바꾸어 노핫다

1938의 印象 ① 感銘의 作品

映畫

★舞蹈會의手帖……白鐵、金珖燮、徐光霽、李善熙、沈載淳、金晟鎭、崔貞熙
★最下層……金珖燮、徐光霽、李孝石、李善熙、林和、鄭玄雄
★제니의 집……徐光霽、具本雄、鄭玄雄、李孝石
★大地……沈載淳、金珖燮、兪鎭午
★오―케스트라의少女……徐光霽、金晟鎭、白鐵
★모던 타임쓰……具本雄、林和
★어떤映畵監督의一生……白鐵、李孝石
★武器업는騎士……金珖燮、鄭玄雄
★科學者의길……金晟鎭、金珖燮
★椿姬……李善熙、金珖燮
★스타―誕生……李孝石、金晟鎭
★나는바다의아들……沈載淳
★어떤女子……崔貞熙
★舞臺의戰慄……白鐵
★새벽날개……李善熙
★노래하라愉快하게……鄭玄雄
★갓난애기……白鐵
★新婚道中記……鄭玄雄
★火夜……白鐵
★第九交響樂……崔貞熙
―――★―――
★路傍石……具本雄、沈載淳、白鐵、徐光霽、鄭玄雄
★太陽의아들……徐光霽、鄭玄雄、崔貞熙
★阿部一族……李孝石、白鐵、具本雄
★無限한前進……具本雄、金晟鎭
★綴方敎室……白鐵、徐光霽
★바람속의어린이……白鐵
★藁……李孝石
★冬의宿……徐光霽
★螢光……李善熙
★五人의斥候兵……鄭玄雄
★綠波의아버지……崔貞熙
★三枝子의兄……兪鎭午

演劇

★目擊者……沈載淳
★깨여서노래부르자……金珖燮

예술의도시 파리(巴里)에서 무용을 연구하고도라온 조택원(趙澤元)씨는 지난팔월 금의환향하야 동경(東京)의 체일 창작무용발표회는 절찬을바덧거니와 이번다시 금십삼일(十三日)오후칠시 경부(京府)대강당에서 창작무용발표회를 가지기로되엿는데 파―트너는 김민자(金敏子)양이찬조출연하기로되엿다한다

講演『겨울을그린作品과 그逸話』 (十三日後六時) 崔淵海 (平壤으로부터全朝鮮中繼)

梗概…예로부터 화가와 빈곤은 숙명적으로 떠러질수업는것처럼 말하여왓습니다 그중에도 특히 빈곤한 화가로서 겨울을 그린다는것은 세인이 상상할수업는 쓰라린경험을 맛보지안흘수가 업섯습니다 동서거장들중에 겨울을그린 작품이 허다하나 인간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우리가 잘아는 명화가의 작품을들어 재미잇는 일화를 소개하고저합니다

講演 手形과小切手 (十三日後七時三〇分) 朝鮮銀行 具鎔書

신용취인(信用取引)에잇서서 리도업지못할수형과소절수에대한상식화한지은현대인에게 불가결한것입니다 먼저수형의개념(槪念)을말씀하고종류와약속(約束)수형을해석한후 그악용(惡用)과 부도(不渡)시효(時效)에대하야 설명하겟습니다 그리고소절수(小切手)에대하야도 대강이상에말슴한순서에따러서 설명하려고하는데 특히 수형과소절수두가지에대하야 제일주의할점은그악용(惡用)입니다 그럼으로 그실제를 드러서 그로말미아마입는피해가 어떠한것인지를 설명하랴고합니다(끗)

=連續라디오小說= 哀史 (一) (十三日後九〇〇)

朗讀 卜惠淑

『빅톨·유―고』의원작(原作)『레·미세라블』을 방송소설(放送小說)로 에당하게번안(飜案)한것으로 원래가 대작인것을 불과한시간반동안에 낭독할분량으로 압축(壓縮)하는데는 적지안흔 무리가잇섯습니다 그러나 원작에충실히 그전모(全貌)를나타나기에는 되도록 주력한것입니다

『쟌발쟌』―기아(饑餓)의극도에달한 생질들을위하야 빵한개를 훔치다가 투옥되여 결국오랜 죄수생활을하고나와『에밀』승정(僧正)을만나기까지

둘째날은―그후시장(市長)으로출세한『쟌발쟌』이『코젯트』라는 불상한소녀를알게되기까지 여기『쟈벨』이등장하게됩니다

셋째날은―『쟈벨』은 스스로자결하고『코젯트』는성인하야연애에도 성공합니다 모든것이 해결을지엇슬때『쟌발쟌』의일생에도 고요히막이내립니다

라디오 프로

十三日(火曜)

◇午前七時五〇分 皇居遙拜(第一放送에依함) ◇同七時五一分(東) 라디오體操(第一放送에依함) ◇同一〇時三〇分 氣象通報 家庭메모 日用品時勢 ◇正午(東) 時報 ◇午後零時五分 獨唱과피아노獨奏(레코―드) ◇同零時三〇分 뉴―스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經便한菓子製法』(一) 金和中 ◇同四時 뉴―스 職業紹介 ◇同六時 童話 金剛童話會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伴奏 金仁洙 獨唱 李右榮 ◇同六時三〇分(平) 趣味講演『겨울을그린作品과逸話』 崔淵海 ◇同七時 뉴―스 銃後美談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講演『手形과小切手』 鮮銀 具鎔書 ◇同八時(東) 吹奏樂 一、行進曲『南京陷落』陸軍軍樂隊作曲 二、〃『萬歲』大沼哲作曲 三、鎭守祭 四、行進曲『喜壽의兵隊』 五、〃『드러어戰』 杉山長谷雄作曲 陸軍戶山學校軍樂隊 指揮 樂長大沼哲 ◇同八時三〇分 伽倻琴併唱 一、短歌 竹杖芒鞋 二、唱劇調 가、泛彼中流 나、赤壁歌 伽倻琴 丁元燮 杖鼓 李素香 ◇同九時 連續라디오小說『哀史』(一)―洪闌坡編― 卜惠淑 ◇同九時三〇分 뉴―스解說 ◇同九時四〇分(東) 時報 뉴―스 氣象通報 明日曆 翌日順序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 ◇同一〇時一〇分 中等國語講座(三六) 李完應

第一放送 ◇午前七時一分 基礎英語講座 ◇午後零時五分(城) 管絃樂 ◇同六時(大) 이야기 ◇同六時二五分(東) 講演 ◇同七時三〇分(東) 歌謠 ◇同七時四〇分(北京) ◇同八時(東) 吹奏樂 陸軍戶山學校軍樂隊 ◇同八時四〇分(東) 講演 ◇同八時五〇分(東) 靑年時間 ◇同九時一〇分(東) 講談

十四日(水曜)

◇午前七時五〇分 皇居遙拜(第一放送에依함) ◇同七時五一分(東) 라디오體操(同) ◇同一〇時三〇分 氣象通報 料理製法『三色煎』 日用品時勢 ◇正午(東) 時報 ◇午後零時五分(名) 室內樂 余吾絃樂四重奏團 ◇同零時三〇分 뉴―스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經便한菓子製法』(二) 金和中 ◇同四時 뉴―스 職業紹介 ◇同六時 幼年童話 一、호랑이와곳감 二、장보러가는여우 趙鏞子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라디오時局讀本 ◇同七時 뉴―스 銃後美談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講演『昭和十三年回顧』(一) 經濟界 徐椿 ◇同八時 京畿歌謠 一、譽年歌 二、방아打鈴 三、노들江邊 四、江原道아리랑 五、金剛山打鈴 崔壽成 權受鳳 ◇同八時三〇分 歌詞 一、春眠曲 二、竹枝詞 金美花 鄭玉姬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九時 連續라디오小說『哀史』(二)―洪闌坡編― 卜惠淑 ◇同九時三〇分 뉴―스解說 ◇同九時四〇分(東) 時報 뉴―스 氣象通報 明日曆 翌日順序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 ◇同一〇時一〇分 初步國語講座(四二) 宋今璇

第一放送 ◇午前七時一分 支那語講座 ◇午後零時五分(名) 室內樂 ◇同三時三〇分 西洋音樂講座 ◇同六時(福) 이야기 ◇同六時二五分(城) 講演 ◇同七時三〇分(東) 歌謠 ◇同七時四〇分(大) 講談 ◇同八時(東) 浪花節 德川夢聲 ◇同八時三〇分(東) 라디오小說 ◇同九時(東) 講談

今週映畫

明治座 十一日부터 一日間 高田浩吉主演의『湖畔의朝』와松竹大船作品『家庭日記』上映 十五日부터 四日間『아내를무서워하는남편』과 자네트·맥도날드의『로―스·매리』上映

若草劇場 十四日부터 東寶作品『南海』를上映하는데 藤原釜足主演의『쇼코―레―트와兵隊』『에노켄의大彌次喜多』 大河內傳次郎主演의『武道千一夜』上映

黃金座 十二日부터 二日間『忠臣藏』과 記錄映畵인『香港』을上映 十六日부터 五日間 稻垣浩監督인『鞍馬天狗』와小杉勇主演의『靑春の氣流』과 애드라 순으로『머드로·쏘―』를 上演한다

弱한身體

病든몸이健壯하게 되여回復이빠르다

植物精應用으로 瓜에健康의象徵

손톱을 보면 그사람의 健康狀態를안다 爲先 體質이 弱한분、病든분、體力이 衰退된분、이러한분의 손톱은、表面이 粗剛하고 光澤이업스며、縱橫으로 筋이보이며、무르고 또그러치안흐면 퍽 단단하고 두타웁다。그리고 손톱이 더듸자란다。이와反對가 無病으로健康한때로알어도조타。

弱한 身體를 健康하게하기 爲하야 여러가지 健康法과 滋養品等을 試驗하여 보아도 效果가 明瞭치안흔때는 體驗者에게는 참으로 마음에 애가타는것이다。그런데 여기 ネオネオギ―라는 藥物이잇다。이藥物은 反應이 分明하고도 速히알게되며、더욱이 健康狀態의 良化가 손톱에 歷歷히나타날만큼이며、服用者에게 퍽感謝를 밧고잇다。

ネオネオギ―는 細胞能動原이라하는植物호르몬을 主効分으로 한것인데 이植物 호르몬이體內에 드러가면 細胞에 强하게 活動하므로 胃腸과其他의 機能이 活潑하게되여 호르몬分泌도 旺盛히 되는것은 말할것도업고 胃腸機能이 旺盛히 되면 消化力이 생기고 吸收가 良好해저서 血肉이 增殖한다 肝臟의 機能이 亢揚하면 解毒作用이 强하게되여 體內로부터 有毒物이 除去되여 淸潔한肉體가 된다 脾臟이 그러면 結核에 對하야 抵抗力을 增加하야 恢復을 速케한다

―이러한作用이 一齊히 活動하면 病은 速히治療되고 弱한몸은 健康하게되지안흐면안이될 理致이다

反應의明瞭한一例로써 손톱에 對한것은 上述한바와 가트며 더욱 ネオネオギ―를 服用하면 食事가美味하며 血色이 조케되고 元氣잇게 되여 瘦瘠한분은 肥大해진다。

그리고 이러한 反應은 試驗하면 알게되므로 服用한분은 퍽질거워한다 또 이藥效를모르는분은 꼭한번 試驗하여주기를바란다。

本邦唯一·植物호르몬劑 **ネオネオギ―** 約一ケ月分大瓶一圓七十錢

購入의注意

ネオネオギ―는 二百六十個大瓶一月量一圓五十錢 德用三圓、九圓、錠型粉狀의別有함。全國藥店에有하나 植物호르몬劑는本品뿐이므로 代藥을勸하시도록하라

直接申込은 振替로조흐며 代金引換으로 職員向送하야急送함。送料는 硏究所에서 負擔함。但海外는 振替東京五六八一二番에拂込할것。

東京日本橋堀留町一丁目四 申込所 日本微生物硏究所 當所는 小石川關口町으로부터右로移轉하엿다。 (SN3D―278B)

ネオネオギ― 愛用者奉仕 健康增進運動

血色이 良化하야 瘦瘠體는 肥大한다 ネオネオギ―는 細胞

體育用品贈呈

奉仕期間 自 昭和十三年十二月十日 至 同 十四年二月十日

★抽籤券及特別奉仕品封入『奉仕袋』贈呈 ネオネオギ―一瓶사실때마다

◇特別奉仕品

『奉仕袋』의中에는 體育用品贈呈 抽籤券外에 特別奉仕品으로써 左記中 一種을無漏封入하여잇습니다

★배―쿠라이트製携帶용器 ★ネオネオギ―パズル ★蕃香藥本

◇抽籤內容 (一萬本一組에對하야)

1、堅牢夜光時計 一本
2、リユツク、サツク 二本
3、體育用具エキスパンダ― 五本
4、體育用靴下(一對) 十二本
5、ハイキング用大型ナイフ 三十本

抽籤期日 昭和十四年二月中旬執行
抽籤發表 同年三月中旬新聞紙上

注意 本奉仕의適用은左의各府縣으로함。青森·千葉·埼玉·長野·富山·和歌山·廣島·高知·福岡·鹿兒島(以上十縣) 東京府下는別로規定有。

此のコ―ルドの優れた点は…

(이 코―ㄹ드 우수한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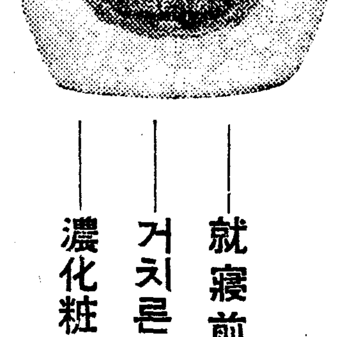
❶比類가업는强力한滲透作用!

❷若肌를培養하는 훌륭한 美肌作用!

이두가지의、外國品에도 類가업는 特長을具備한 ウテナコ―ルド인만큼、치위로부터 살결을 完全히지키며、皮膚의 深部에작구 豐潤한榮養을주어서 皮膚의 生活力을 旺盛히하며、 잔주름、 살거른것을 解消하는同時에 一方、獨特한美肌作用으로 肌理가고운、白色의 端雅한 美肌를 맨들수잇는것입니다。

지금까지 普通콜드를使用하여 아무리 皮膚에손질을 여도좀체로 잔주름이업서지지안코 살깔도 아름답게되지 안는것은 所重한右에 列擧한두가지의 條件이具備되여잇지아니한때문입니다 一刻을速히 ウテナコ―ルド를 使用하여주십시요

正價·六十錢 一圓二十錢



―就寢前의맛사―지用으로
―거치른부의洗顔에반드시!
―濃化粧下에가장理想的이요

ウテナ(花印)コ―ルドクリ―ム

(우테나 코―ㄹ드 크림)

國産最高 **ウテナほゝ紅**

化粧을아름답게살린다

化粧을生氣잇는 아름다웁게하는데는 暗然지의 好不好에 充分注意하지안흐면 아니됩니다 ウテナホホ紅는피는것이 自然스러웁고 色調가 非常히 鮮麗하며 그리고참으로 血色과가티먹으므로 化粧이더욱빗나서 生氣잇는立體的인 아름다움을 充分히發揮할수잇습니다

正價·三十五錢 新型ケ―ス入……四十五錢

13.12―5.2

劇團『優光座』公演 第5週 十一日부터 大衆席三十錢均一 上演劇目 晝夜2回 晝一時 夜六時半
金春光 力作『校ュ庭정』全幕
金春光作 歌謠·舞踊 寂寞

『結婚費八百弗』一幕
『家なき兒』
『ロベルリナン』主演 ルリナン少年の名作『家なき兒』のレミー少年を演る兒童
近日公演
電話(光)三四九二番 **國成社**

十二月二十二日부터十六日까지(四日間)
大每ニュース
合同商事提供品
ベンガル猛獄王
田園交響樂 主演 山本禮夫氏 高田稔氏 富士山君子 原節子
女ヲ捜セ チヤルスライスナ ロマアレキオンタ! ペトリシユヤエリス
パラマウント社特作全發聲日本版
乞期待
新富座

デユヴイヴイエ作品中忘れてならぬ名篇に再會
巴里の暗黑面惘痴狂態と殺人しかも凡ゆる人生への反抗自棄と頽廢した時代病・生きる凡てが共に吸ふこの呼吸それは哀愁と孤獨恐怖と悲哀嘆逃がしやせぬ
『モンパルナスの夜』
アリボ―ル インキジノフ 主演 暗い日曜日のダミヤ特別出演
好十郎原作(中央公論所載)
地熱
藤井貢 丸山定夫 堤眞佐子 竹久千惠子 主演
二十錢均一
於 **府民館**

◆待望!又待望!◆ 十二月十一·十二日 三日間(夜間만)
◆府民館에서◆ 林仙圭力作 幼年名星 嚴美花 主演
◇流浪三千里 前後篇 大會
◆劇團豪華船全員總出演◆
入場料 每夜六時正刻開演 五十錢均一 暖房完備 府民館
◆謹告◆ 十二月十一·十二·十三日 四日間은撮影準備로休演하옵고 十四日부터 左記新劇目을上演하겟습니다
◆東洋劇場에서◆ 林仙圭作 靑春座上演 靑春座
◇路 傍 草◇ 三幕五場
電話 ③ 2·1·5·4(劇場) 3·6·4·0(事務室) 專用
暖房完備 **東洋劇場**

十二月十二日(月)부터三日間 每日三回興行 一回十一時、二回
大衆料金階上二十錢階下十錢均一
獨乙 도―비스映畵社超特作全發聲
日本版 하리―비―르監督 世界の王者
米國 와―너―브라더―스 시버―리·와―도 주니어·팀 主演
日本版 에드워드·로빈슨 暗黑街
歡 く 凱 歌
全部 메바人―구리 카네라一 松本榮三郎 宮川敏子 主演
股旅辨天小僧
東日大每 ニュース
次週豫告 漢江狂亂のマンダレ― 朝風花嫁篇
電光 一七五五
第一劇場